

성폭력피해자 권리현장

- 1. 모든 성폭력 피해자들은 나이, 직업, 성별, 학력, 경제력, 성정체성, 신체적·정신적 능력, 종교 등과 상관없이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고 존중·지지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피해의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받고 배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1. 어떠한 피해자도 피해입기를 원했거나 피해를 당할만 했거나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으며 폭력으로부터 살아나온 모든 성폭력피해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1. 성폭력피해자의 권리현장을 채택함은 더 이상 성폭력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비난받거나 사회적으로 두려워할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피해자는 바로 그 피해로부터 살아나온 이유로 지지받고 격려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권리현장은 **성폭력추방주간(11월25일-12월10일)**을 기념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제정한 것이다.

“세계 성폭력 추방의 날”은 도미니카공화국의 세 자매가 독재에 항거하다 살해당한 것을 기려 1981년 라틴 아메리카 여성들이 가진 모임에서 11월 25일을 “세계 성폭력 추방의 날”로 정하여 지켜왔다. 그러다가 1991년 성폭력 추방을 위해 활동하는 세계 각국의 여성운동가 23명이 모여 미국 뉴저지주의 여성국제지도력센터에서 “여성, 폭력 그리고 인권”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16일간을 “성폭력추방주간”으로 하여 전 세계에 확산시키기로 하고 이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11월 25일 세계 성폭력 추방의 날을 시작으로 하여, 12월 4일은 1989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4명의 여대생이 아무 이유없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한 남자에 의해 집단 살해된 날이며, 또한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이기 때문이다. 이 기간동안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하게 성폭력 추방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부터 각 단체별로 추방운동을 진행해왔다. 본 상담소에서는 1991년 (어린이 성폭력 추방을 위한 한미당)을 시발로 8년째인 올해는 작년에 이어 컴퓨터통신 유니텔과 함께 사이버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사이버토론회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온라인성폭력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영화배우 문성근, 국제 변호사 로버트 할리, 김을호 학백, 민우희, 참여연대 등 각계인사 및 단체와 일반 이용자가 함께 열린 토론을 벌였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제11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이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주동안 진행되었다.



제10기 성폭력전문아간상담원교육이 총 60여명이 참가하여 10월 16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금, 토요일로 진행됐다.



10월 31일 본 상담소에서는 시청역 비지니스호프에서 (기금마련 일일호프)를 진행했다.



11월 19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 (21세기 여성·미디어 운동센터 발족기념식 및 발족기념 토론회)가 '미디어와 청소년 성문화'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천년의 겨울을 건너온 여자〉를 통해 성폭력피해와 그 후유증을 고백한 페미니즘시인 박서원씨와 류숙렬, 여난영씨와 함께 11월 13일 오후 4시 본 상담소 교육실에서 (성평등교육문화센터발족기념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국민인권위원회 설치와 여성인권보장체계



김엘림 (한국여성개발원 법·정치 연구부장)

1. 여성인권보장에 관한 법무부 인권법 시안

지난 9월 발표된 법무부의 인권법 시안은 차별 분야 사유를 현행법보다 넓게 확대하고 성희롱을 차별유형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민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구성에 최소한의 여성수를 정하고 있어 인권위의 활동계획수립과 실행에 있어 여성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 시안은 여성인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인권침해행위를 일정 국가기관이나 다수인보호시설의 가혹행위 등으로 제한하고 차별행위와 성희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국제인권관련조약과 맞지 않으며 차별행위나 성희롱을 인권침해행위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인식시킬 수 있다. 둘째, 차별의 판단기준을 합리적 이유의 유무에 두고 있어 판단자의 주관적 견해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고 간접적 차별을 규제하지 못할 문제가 있다. 셋째, 성희롱을 보호·감독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자에게 하는 행위로 국한하여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는 상사, 동료, 하급자 등의 행위를 제외하고 있다. 넷째, 진정사건에 대해 조사, 합의권고, 조정, 시정권고, 의견 표명에 그치고 있는데 이러한 처리방식은 현행 여성차별문제처리보다 실효성이 특별히 담보되어 있지 않다. 다섯째, 인권위를 법무부 산하의 법인으로 설정하고 인권위의 구성과 운영, 예산편성에 있어 경찰, 검찰, 교도소 등 인권침해가 다수 발생하는 기

관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 관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여섯째, 인권위가 여성차별문제를 소관사항으로 함으로써 여성차별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이미 설치된 여성특위, 고용평등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여성인권보장체계의 개선방안

여성인권보장체계를 개선함에 있어서는 그 설치와 운영, 권리구제에 있어 최소한 신뢰성, 신속성, 간이성, 전문성, 독립성, 접근가능성, 실효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차별문제와 성희롱문제는 여성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차별은 인권침해나 범죄가 된다는 인식도 높지 않으며 또한 그 차별성의 탐지나 판정도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판단과 함께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가치관이 있어야 가능한 경우가 많아 외국에서도 전담처리기구에서 다루어지는 특수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인권보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각 기구의 역할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 국민인권위원회

인권위가 여성차별을 포함한 모든 인권문제를 다루게 되면 소관사항이 방대해져 제한된 예산, 인력, 경험으로 인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없고 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 대책과 사건처리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인권위는 국가기관이

자행하거나 일반 수사, 사법기관이 탐지, 처리하기 어려운 인권침해문제, 기존 행정기관이나 인권보장기구에서 처리하지 못해온 인권침해문제를 처리하고 인권교육과 국제인권관련조약의 이행촉진과 국내법이나 정책의 개선에 필요한 활동에 그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폭력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검사, 법원의 사건처리에 대한 감시, 보완의 역할을 하여 사법기관에 의해 여성 피해자들이 또 다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반면 여성차별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 특수성과 전문성, 접근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미 설치, 가동되어 있는 현행 기구의 장점을 살리고 문제를 보완, 이들 기구에서 일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인권위가 성차별문제에 관한 진정을 접수한 경우, 여성특위에 사건이송을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2) 여성특별위원회

여성특위가 여성차별문제와 성희롱문제를 조사, 처리, 시정요구를 하기 위해선 성차별개선위원회를 발전시켜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사건을 조사하고 조정, 시정권고나 시정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준사법적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성차별, 성희롱에 관한 지침이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법안 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준입법적 권한도 필요하다.

(3) 고용평등위원회와 지방노동관서

여성특위가 모든 여성차별문제를 전담하는 것은 조직, 인력, 업무처리 경험의 한계와 지방조직이 없어 접근가능성이 떨어지는 등 인권보장기구로서의 기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여성고용차별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노동관서가 조직되어 있고 노동문제 관련 경험을 지닌 직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노동부의 장점을 살려 근로감독관이 조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특위가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 판단되는 경우는 사건을 이송, 필요할 경우 여성특위와 노동부가 협조하여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 유아성폭력 피해의 실태 >

조중신 (본 상담소 상담부장)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은 명백한 범죄다. 98년 1월부터 시행된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으로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가 되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제시가 유일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어린이 특히 유아들은 피해정황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사람에게 적절한 지원조치를 받거나 가해자를 찾아내어 처벌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상담소에서는 이에 대한 예방교육비디오, 부모교육프로그램, 지침서 발간 등을 통하여 꾸준히 어린이성폭력의 실태를 알리고 대안을 찾아왔다.) 이번호에서는 유아 성폭력 피해 중에서 유치원, 놀이방 등 민고 맡겨진 시설내에서 유아들이 겪는 성적인 피해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본다.

1. 유아 (학령전어린이) 성폭력 피해사례

- 1) 6살 경아가 (유치원에 다니지 석달이 되는 때), 구석에 틀어박혀 있거나 남동생의 성기를 만지고 빨려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여 병원에 데려간 엄마는 소아정신과 의사로부터 성폭력 피해 증후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가 묘사하는 바에 의하면 할아버지 원장 선생님의 소행이 틀림없었다. 엄마는 유치원에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강력한 부인과 함께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당하였다. 어린이의 말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경찰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피해자를 찾아봤지만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으려는 학부모들의 회피와 냉담에 더욱 큰 상처를 받았다.
- 2) 고은이 엄마는 가게를 새벽부터 밤까지 운영하므로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어 6살 때부터 믿을만한 동네 할머니집에 맡기고 틈나는대로 들여다 보곤 했다. 초등학교에 가야하기 때문에 엄마집으로 온 고은이는 겁에 질려있고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손을 계속해서 씻는 이상한 습관을 보였다. 돌봐주는 할머니가 외출한 사이 할아버지가 상습적으로 아이를 성추행해 왔는데, 아이가 싫다고 하면 놀아주지도 않고 화를 내서 무서웠기 때문에 시키는대로 했다고 한다.
- 3) 영희는 6살짜리 유치원생이다. 원아들이 점심을 먹은 후 낮잠시간이 있는데 한쪽 방에는 아이들을 재우고, 다른 한 방에는 잠을

자지 않는 아이들이 모여 시간을 보냈다. 그 시간에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의 팬티를 내려 만지고 자기네 고추를 빨게하는 놀이가 계속되었다. 여럿이 다 하기 때문에 자기만 안한다고 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다. 몇 아이가 선생님에게 얘기를 꺼냈지만 선생님은 그 나이의 아이들이 보이는 성적 호기심이라 여겨 무심하게 스쳐보냈다. 한참이 지나 진상을 알게된 엄마들은 유치원에 교사들의 감독 소홀을 문책하고 후유증의 우려로 치료를 요구했다.

- 4) 유진이는 7살부터 미술학원에 다녔다. 개인지도를 하는 미술선생님은 가끔 야외로 그림을 그리러 데리고 나가곤 하였다. 유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야 그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당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된 부모는 미술선생님을 고소하였다. 1심에선 5년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 이유는 피해사실은 인정되지만 아이의 진술에 범행일시와 범행장소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 5) 수민이는 엄마가 몸을 씻겨주는데 아래에 손이 닿자 쓰라리다면서 몸을 움츠렸다. 엄마가 놀래 물어보니 유치원버스에서 7세반 오빠들이랑 같이 앉게 되는데 그 오빠들이 아래를 만진다고 한다. 싫다고 하면 자리에 못있게 하고 선생님에게 이르면 혼내줄 거라고 으박지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얘기를 못했단다. 놀랜 엄마는 유치원교사에게 알리고 남자아이들이 사과하고 더 이상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한 남자 아이는 시인했지만 한 남자아이의 엄마는 자기아이가 절대 그러지 않았다 한다며 대질해주기를 요청했다. 그 오빠와 마주 대한 수민이가 주눅거리며 대답을 못하자 그 엄마는 자기 아들을 포함했다고 수민이 엄마에게 사대질을 하며 고함을 쳤다. 결국 수민이는 유치원을 그만 두었다.

이상은 안심하고 맡긴 시설과 기관에서조차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사례들이다. 여성들의 사회진출, 직업참여가 높아지면서 가정 이외의 환경을 접하게 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아이들은 절대적인 보호와 의존에서 벗어나 바깥세계와 거기서 만나는 또래에게 관심있는 교류를 하기 시작한다. 어려서는 외갓집, 친척집 등에게 맡겨지거나 위탁모, 탁아모에게 맡겨지다가 3, 4세 경이면 아이들이 혼자 나가 집밖에서 놀고, 놀이방, 유아원,

유치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에 다니기 시작한다. 맡겨진 친척집에서, 유치원에서, 놀이방에서, 학원 건물 공중화장실에서, 한 살 더 먹었거나 덩치가 큰 아이들에게, 유치원 통학버스 기사에게, 유치원원장의 남동생이나 남편에게, 원장할아버지에게 어린 아이들이 침해당하고 있다. 유아들의 성적인 피해사례가 상담창구에 꾸준히 접수되어 법적, 의료적 심리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 본 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사례 중 성폭력사건만을 연도별로 정리해보면

연도	피해건수	성인피해 20세이상	청소년피해 14~19세	어린이피해 8세~13세	유아피해 ~7세학령전	미상
91~92년	1425	777(54.5%)	265(18.6%)	383(26.9%)		
93년	841건	417(49.6%)	168(20.0%)	140(16.6%)	86(10.2%)	30(0.4%)
94년	1356건	694(51.2%)	238(17.4%)	249(18.3%)	141(10.4%)	35(0.3%)
95년	1021건	522(51.1%)	236(23.1%)	157(15.4%)	104(10.2%)	2(0.0%)
96년	1779건	749(42.1%)	420(23.6%)	401(22.5%)	198(11.2%)	11(0.1%)
97년	1647건	829(50.3%)	380(23.1%)	273(16.7%)	146(8.9%)	19(0.1%)
98년 1~10월	1719건	915(53.2%)	370(21.5%)	260(15.1%)	159(9.3%)	15(0.1%)

98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통계에서 어린이와 유아의 성폭력피해 유형

유형	피해자 가해자 관계	관계	어린이(8~13세)	유아(~7세)
강간	어는사람	아버지(의양부포함)	24	3
		그외친족	17	7
		인척	1	
		동네사람	20	10
		동급생/선후배	1	1
		교사/강사	3	
	그외 기타	5		
	모르는 사람		23	3
	미상		5	1
	특수강간		2	
강간미수		4		
강제추행	어는사람	아버지(의양부포함)	4	7
		그외친족	11	11
		인척	3	2
		동네사람	54	64
		동급생/선후배	6	3
		상징자/신도	1	
	교사/강사	4	12	
	기타	9	7	
	모르는 사람		45	21
	미상		10	2
통신매체음란		2		
*남아피해		5	5	
계	전체 1719건(100%)		260(15.1%)	159(9.3%)

3. 상담에 나타난 유아 성폭력피해의 특성

1) 학령기 어린이(8세~13세)에 비하여 강간보다는 성추행피해가 더 많이 나타나고, 모르는 사람보다는 경계하지 않고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가까운 이는 사람 즉 동네사람, 친척, 교사, 강사 등에 의한 피해가 더 많다.

2) 가해자로는 피해유아보다 조금 더 큰 어린이, 청소년이 많이 차지했는데 가해자도 어린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처리과정상의 애로가 많이 드러난다. 대부분 가해아동에게 사과와 다시는 안그러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재피해를 막기 위해 전학이나 이사를 요구하고 신체적피해 치료, 정신과적 후유증 치료에 대한 보상을 가해아동의 부모에게 청구하고 있다. 어린이 가해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울뿐 아니라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이라는 점에서 처벌보다는 교정교육이나 예방교육의 필요가 대두되며 이에 따른 프로그램개발이 시급하다.

3) 상담은 부모의 대리상담이 가장 많았고, 친척 그의 주변사람(교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 등 대리상담자가 대부분이었다. 어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문의, 후유증에 대한 우려, 가해자에 대한 대처(처벌이나 보상) 등을 문의하였고 특히 부모들이 사건을 접하면서 겪는 충격과 혼란을 호소하였다. 어리기 때문에 성적인 대상으로 접촉되거나 성적인 위협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신이 겪은 일들을 표시할 때 처음에는 무심히 지나치거나 부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4) 성적인 피해임이 드러나면 아이의 느낌을 헤아리거나 적절한 지원을 위해 합리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성적인 의미로의 압도, 미래에 대한 비탄, 관리소홀에 대한 자책감, 가해자에 대한 분노, 피해보상에 대한 집착, 법적처리과정에서의 소진 등으로 충격과 당황스러움에 휩싸인 채 어찌할 바를 모른다. 피해 아이는 자기 때문에 걱정거리를 만들었다는 느낌으로 미안해하고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사건 자체에서 오는 피해보다 발생하고 난 후에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2차피해가 될 수도 있다. 이는 성폭력예방교육이 아이 뿐 아니라 부모에게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5) 유아들이 자신이 당한 일을 구체적으로 일관성있게 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따진다거나 법적처리를 하려할 때 오히려 반박과 비난을 받게 되어 어려움에 처해진 경우가 많다.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다른 아이처럼 분명히 표현 못한다고 부모에게 야단을 맞은 아이가 있는가하면, 아주 똑똑하게 진술한 아이는 어른이 사주하고 주입한 것으로 취급되어 5시간 이 넘게 진술을 받아 큰 건물만 보면 공포에 떠는 후유증을 보이기도 했다.

6) 유아들의 피해는 성추행이 많아 신체적인 상해의 증거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다. 의료진의 진단서발급 기피는 성추행사건인 경우가 더 심했으며 염증, 충혈, 출혈 등이 있어도 피해경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부모에 의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가운데 아이가 심리적인 공포와 위축을 보이기도 했는데 4군데나 병원을 전전하던 5세 여아는 흰가운 입은 사람만 보면 다리가 경직되며 자지러지게 울어 진료를 할 수가 없었다. 결

국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 7) 피해유아들은 아동전문상담가나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요하는데 아직도 심리적인 치료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에 인식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지방에는 소아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적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데도 처벌이나 보상을 위한 진단서, 소견서 발급만을 목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는 후유증 치료를 조건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을 다른데다 써버리고 정작 아이의 치료는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시중 합의금, 보상액에 집착하던 아버지는 아이의 상태를 묻는 상담자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기도 했다.

모든 치료과정은 아이의 건강한 회복과 성장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4.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는 자녀가 회복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1) 아무리 믿기 힘들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더라도 성폭력 발생 사실을 부인하지 말고 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흥분하면 아이를 더욱 불안하고 위축되게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어린이가 느끼는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 아이가 어른에게 말을 한 것은 도움을 받고 싶고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때 지원과 신뢰를 받은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고 회복이 잘 될 수 있으므로 아이 앞에서는 극도의 감정표출을 삼가고 침착해야 한다.

- 2) 아이에게 다그치며 묻지 않아야 하고 아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강요하지 말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야기하도록 기다려 주고, 이야기하고 싶어할 때는 언제든지 들어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또 아무에게나 얘기하려 할 때 억지로 못하게 하는 것은 비밀을 강요하게 되어 피해를 내면화시키고 감정을 억압하게 한다. 아이들이 겪었을 혼란, 두려움, 교묘한 위협으로 인한 죄책감, 고립감 등을 이

해하여야 하며 “네 말을(너를) 믿는다” “네 잘못이 아니다” “이야기하기 힘들었는지 안다” “너를 지켜주겠다” “더 이상의 피해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안심시켜 확신을 주어야 한다.

- 3)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보상 등은 피해아동의 회복을 돕기 위한 한 방법이다. 여기에 집착하느라 피해아동이 방치되거나 그 과정에서 제2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어린이를 가해한 자는 마땅히 응징되어야 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정당한 요구이다. 그러나 의료적인 조치나 법률적인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유아들이 겪을 수 있는 불안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여러번 반복하지 않도록 녹음이나 녹화를 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 4) 기대보다 후유증의 회복이 더디고 감정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다고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도록 한다. 도움과 지지가 있다면 각자 다른 속도와 시간이긴 하지만 반드시 극복과 치유가 가능하다고 믿도록 한다. 특히 유아는 아동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부모의 심리적인 상처도 전문적인 상담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아동을 더욱 적절히 지원하고 양육할 수 있다.

- 5) 아이를 맡기는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혹시 불이익이 올까봐 특별한 배려만을 부탁하고 말 수 있다. 아이를 위탁하게 될 때 아이들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 사고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보장을 받고 구체적으로 책임선을 정한다.

- 6) 성폭력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어린이를 접하는 직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특히 유아들이 위탁되는 시설의 관계자는 성폭력의 위험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하며, 미연에 방지할 책임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책임을 지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아무리 소규모의 개인시설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를 맡아 돌보는 시설 종사자는 연령에 맞는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이수하게 촉구하여야 한다. 또한 유아교육 시설을 관할하는 부처에서는 수시로 이를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 처리하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유**

법률상담 4

경찰서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몇 번이나 가야 하는지 그리고 경찰서나 법정에 다른 사람과 함께 가도 되나요?

성폭력피해로 인해 고소했을 때 고소인은 수사기관(경찰, 검찰)은 물론 기소가 되어 재판이 열리면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우선 고소한 사람을 소환하여 고소내용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는데 1회로 끝날 수도 있지만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 여러번 진술을 해야 하고 가해자와 대질조사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고소인은 자기가 아는 가족이나 법률전문가와 함께 출석하여 그들의 조언을 받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종종 수사기관의 편파적인 또는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위의 방법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특별법 제 22조의 2 참조). 혼자서 증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는 부모나 가족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상담가, 법률전문가 등)와 함께 동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성폭력에 관한 법률지침서〉(한국성폭력상담소, 1997) 참고



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폭력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¹⁾

윤이경미 (본 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사회는 좋은 것들과 사악한 것들, 무의미한 것과 의미지울 수 없는 것들로 끊어 넘친다. 최선의 것이 없을 때는 차선의 것을 택하여야 한다. 청소년이 성적 존재로서 인정받은 지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성교육과 그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교재가 부족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본다고 마구 욕할 수 없다. 이들에게는 이것이 차선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란물(성인만화, 성인남성잡지, 포르노 비디오, 인터넷 포르노 등)은 섹스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것은 물론 여성을 대상화하여 확대하는 것을 섹스의 한 방식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이를 보는 남녀 청소년으로 하여금 섹스를 오락으로, 여성을 물건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음란물은 종류별로 특징이 있다. 만화는 기상천외한 상상력으로 성, 여성, 남성, 인간관계를 희롱하고 인간의 성을 가버우면서도 흥미있는 장난으로 그리고 있으며,²⁾ 성인남성잡지는 여성의 과장된 요염함을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성적 신경계를 부풀게 하고, 인터넷이나 비디오 등을 통한 포르노는 가학과 학대와 폭력을 성화(sexualization)시키는 것은 물론 이를 실제로 행해보임으로써 폭력적 성을 고정사실화한다. 이러한 음란물이 차선의 대안이 되어서는 안되는 또다른 근거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인격체끼리의 성행위를 철저히 배제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을 범죄가 아닌 성행위로 곡해하도록 유도한다는 데 있다.

무작위로 만난 남녀 청소년(중·고등학생) 약 20명의 입을 통해서 음란물의 메시지가 이들에게 어떠한 성의식을 구성하도록 하는지 보았다. 같은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성(gender)에 따라 받아들이는 과정과 내용은 차이가 난다. 남학생은 빠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적어도 중학교 때부터 음란물 소비의 주체로서 남성 대열에 당당히 입성한다. 남학생은 성지식, 성행위의 테크닉을 배우는 교과서로서 음란물을 상호 유통시키고 있으며, 음란물의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절대화하고 있다. 즉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고 파편화된 조각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여성의 몸을 확대하고 비하하는 방식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려는 성적 욕망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폭력적인 성행위를 많이 할수록, 음란물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많이 수용하고 체화할수록 남학생 집단에서는 영웅이 되고 있다.

여학생은 남학생만큼 음란물에 노출되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과 비교하자면 여학생 사이에서도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음란물이 유

통되고 있다. 여학생은 음란물에서 그려지는 여성의 위상과 역할을 수용할 뿐 아니라 성행위와 성폭력의 경계를 알지 못한다. 적어도 남학생 만큼 음란물의 메시지를 절대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학생들도 음란물에 반복 노출되면서 강간 신화의 일부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신에게 행해지는 성적 행위가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가 될 잠재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이 내숭을 떨다가 성적으로 흥분하는 음란물의 메시지를 수용한 여학생들은 여성의 역할이 으레히 그래야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 왜곡된 성적 각본을 구성하게 된다.

음란물에 대한 여러 주장들 가운데는 적어도 성인일 경우 음란물을 통해 빈약한 성적 상상력이 자극받을 수도 있다는 허용적인 입장도 있다. 그러나 이미 촘촘한 의식구조 속에까지 침투한 남녀 비대칭적 관계와 구조적 조건 속에서 여성을 비하하고 대상화하며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성을 성행위의 일종으로 거침없이 재현하고 있는 음란물의 영향은 성인이건 청소년이건 결코 건강한 성의식으로 연결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음란물의 메시지를 반박하는 제도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장치가 전혀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음란물을 절대 보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첫째, 여성비하적 음란물은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는 것, 둘째, 총체적인 인간교육으로서의 성교육 개발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셋째, 음란물을 사회구조적 시각에서 비판할 수 있는 공적 영역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의 우리 성문화는 청소년에게 제공될 시각적 교재와 인간중심적 관점의 성교육이 얼마나 활발하게 전개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윤**

- 1)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프로젝트로 본 연구소가 지난 5개월동안 작업한 연구물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좁은 지면을 빌어 이번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나눔이 유수아, 허은하, 김아미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2) 요즘 상당히 주목받는 '누들누드' 작가는 자신의 만화 소재를 "남성이라면 한번 짚가졌을 성적 상상력을 동원한 것"이라고 한다. 작가 스스로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린 것이라고 대답에서 밝히고 있다. 한편 이 만화에 집중되고 있는 관심은 기발한 아이디어와 참신성, 탄탄한 구성과 스토리텔링이라는 찬사로 이어지고 있다. <세네21 / 98. 11. 5일자>

성평등교육문화센터 발족

한은희 (본 상담소 성평등교육문화센터 부장)

본 상담소는 1991년 개소 이래 성폭력 피해자에게 법적, 의료적 심리적 지원과 함께 성폭력의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성교육 특강, 청소년 캠프 등을 실시하여 성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성문화의 토대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여 왔다.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평등문화를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리기 위해 일상적인 교육과 문화프로그램들을 실시해 나갈 성평등교육문화센터를 발족했다.

우 리사회는 성 개방화의 흐름 속에서 성교육의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성교육의 이념으로부터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이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센터는 성교육의 이념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성교육 전문가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아동과 청소년, 학부모, 장애인, 특수 집단 등 연령 및 대상에 맞는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것이다. 특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성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성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할 예정이다.

본 센터는 가부장적 문화속에서 억압당하고 잊혀져버린 여성의 주체성과 창조성을 회복시키고 그 힘을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장을 창출하고자 한다. 여성주의적 글쓰기, 연극, 공연, 워킹숍 등을 통해서 여성의 말을 살리고 여성의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통해 평등문화 만들기의 토대를 다질 것이며, 여성과 남성이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평등부부 워킹숍, 예비부부 워킹숍 등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들의 권익이 보호되는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교육을 통해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법적·의료적 지원의 원활함을 꾀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고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시키는데 밑거름을 마련하고자 한다. 더불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성폭력 피해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성평등 문화는 가르쳐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고정되어 버린 가부장적인 불평등 문화를 바꾸어 가기 위해서 교육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본 센터는 교육과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 있고자 한다. 강요된 가르침이 아니라 참여와 놀이 속에서 개개인의 삶이 변해가고, 세상의 흐름을 바꾸어가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고자 하며 늘 새로운 영역과 프로그램 개발의 실험실이 되고자 한다.

본 센터의 운영위원은 강영숙(사회학·교육심리 전공), 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 부원장), 박미라(페미니스트저널 이프의 편집장), 백영애(강남여중 교사), 여난영(프리랜서 작가), 이철원(심리교육센터 마음길 소장), 최영애(본 상담소 소장), 이미경(본 상담소 부소장) 이하 8명이다.

본 센터의 발족을 기념한 특별강연회가 98년 11월 13일 본 상담소 교육실에서 개최됐다. 성폭력 피해와 그 후유증을 고백하며 성폭력피해자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한 박서원(<난 간위의 고양이>, <이 완벽한 세계> 등의 시집과 자전적 에세이 <천년의 겨울을 건너온 여자를 발간)씨와 문화일보 류숙렬, 자유기고가 여난영씨와의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본 센터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시인 박서원씨의 [여성의 삶과 글쓰기]가 진행됐다. **유**

미래문화를 위한 21세기 여성·미디어 운동센터 발족문

본 상담소에서는 1991년 개소 이래 20,000여 회의 성폭력 피해상담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 매우 심각한 수위에 있으며, 이러한 원인이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폭력 양상은 개인의 개인에 대한 것에서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도 조직적인 성산업화의 양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산업을 가능케 하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대중 전달 매체로서, 이들은 왜곡된 성문화의 대량생산과 대량배포 기구로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문화의 대량소비를 위한 촉진 기구로도 기능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의 미래인 정보사회의 가상공간도 이미 성산업이 선점하여 그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은 미디어 산업에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끝없는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업주의 미디어 문화에서 그 내용의 생산과 소비는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소비되지 않는 것은 생산되지 않으며, 수요가 없으면 공급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한편으로는 열심히 보는 미디어의 내용을 한편으로는 나쁘다거나 고치라고 요구하는 이율배반적 수용자가 있는 한 미디어 수용자 운동은 성공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 미래의 여성과 남성을 위한 페미니스트 미디어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미디어의 가상공간은 우리를 미디어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미디어의 적극적 사용자들이기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까지의 이율배반적 미디어 수용자 운동에서 더 나아가 자기 개혁적 미디어 사용자 운동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운동은 미디어 내용에 자연스레 녹아 있는 우리의 잘못된 성 관념을 노출시키고 폭로하고자 합니다.

둘째, 이 운동은 인간 신체의 성 상품화를 거절하고, 미디어 산업이 만들어 내는 포르노성 상품의 소비를 사절합니다.

셋째, 이 운동은 대안적 성문화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정립하고 이의 정착을 위한 적극적 실천을 지향합니다.

앞으로 21세기는 미디어가 움직이는 미디어 중심적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21세기 여성 미디어 운동센터'는 미디어 문화가 바로 우리의 문화라는 신념으로 미디어 사용자 운동을 미디어와 사용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미디어 문화운동으로 넓히고자 합니다. 미디어 문화운동은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유**

(사)한국성폭력상담소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하는 성 평등의 민주사회를 건설하는데 건강한 미디어 문화의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21세기 여성·미디어 운동센터'를 발족합니다.

21세기 여성·미디어운동센터 공동위원장 : 박정순(경북대 신문방송학) / 최영애(본 상담소 소장)

지원위원 : 강명구(서울대 언론정보학과) · 김훈순(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 원용진(동국대 신문방송학과) · 홍석경(방송위원회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 백지연(MBC 기자) / 지영선(한겨레 논설위원)

우리 시대의 성과 <처녀들의 저녁식사>

김선아 (영화평론가)

1998년 가을, '여성의 성 sexuality' 을 다룬 일련의 한국 영화가 개봉되었다. <처녀들의 저녁식사>(임상수 감독), <정사>(이재용 감독), <파란 대문>(김기덕 감독) 등이 그것이다. 이는 여름에 일었던 <조용한 가족>(김지훈 감독)과 <여고괴담>(박기형 감독)류의 공포 영화 붐에 이어 가을을 장식한 여성 영화—여기에서 여성 영화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여성의 관심사 및 삶을 중심으로 한 영화로 정의한다. 들이다. 한편 공중파 텔레비전에서는 '구성애의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의 성(을 위하여)' 이 시청률 1위를 달리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 후 10대의 이성 문제나 고민거리를 다루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공중파와 케이블 가릴 것 없이 앞다투어 신설되었다. 장마와 공포 영화의 여름이 지나고 여성 영화와 성이 지배한 가을인 것이다.

이제 성은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10대의 성뿐 아니라 공창(公娼)제(주병진 쇼에서는 '공창제 도입에 관한'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 더 나아가 이성애 제도를 벗어난 모든 성적 소수자들의 성(11월 6일부터 14일까지 아트선재센터에서는 '퀴어 영화제'를 했다) 까지 성은 세상의 모든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가장 풀기 힘든 화두가 되어 버렸다. 텔레비전과 영화쪽에서 일기 시작한 성담론은 여성을 발화의 주체로 행위의 주체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희생자로서의 여성, 대상으로서의 여성이라는 위치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 신비하거나 알지 못해 어두운 대륙으로만 여겨졌던 여성의 성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대의 성이 여성의 말과 이미지와 이야기를 통해 구체화되거나 조정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이전의 성담론과는 다른 어떤 틀이 요구되었고 이 틀은 그동안 타자 혹은 피권력자로 존재했던 10대와 여성의 성을 중심으로 짜여졌다. 그러나 여성이 말과 이미지와 이야기의 주체가 된 성담론들을 보다 가까이 들여다 보면 아주 다른 층위에서 성을 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시대의 성을 둘러싼 지배적인 이야기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처녀들의 저녁식사>를 살펴보자.

여성들과의 다양한 인터뷰를 거친 후 시나리오를 썼다는 <처녀들의 저녁식사>는 <정사>나 <파란 대문>보다 훨씬 현실적이며 그러므로 또한 가장 논쟁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실적이라는 말은 인터뷰라는 기록에 근거한 이야기와 거칠고 덜 환영적인 영화적 기법 그리고 관객이 사실적이라고 여기는 현실과 상응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붙여졌다. 즉 이 영화를 본 여성 관객들 대부분은 영화가 내 경험과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영화처럼 그렇게 살거나 해볼 수도 있다는 현실 가능성을 좀 더 갖게 된다는 것이다.

세 명의 여자, 연희(진희경), 순이(김여진), 호정(강수연)은 각기 다른 직업에 각기 다른 취향과 각기 다른 세계관을 갖고 사는 여성들이다. 이 영화는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싶어하는 연희, 남자와 독립적으로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순이, 일의 성과 경제적으로 무장한 프리섹스주의자 호정이 성을 매개로 세상과 협상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영화이다. 이 영화가 논쟁적인 이유는 에로 영화의 관음증적인 시선도 포르노의 거짓 오르가즘도 멜로 드라마의 한뼨도 없이 성을 둘러싼 여성들의 통념과 기대와 환상을 발가벗겨 보여주고 그것을 다시 여성들의 삶과 연관시키고자 하는 영화의 의도 때문이다.

범박하게 이 영화의 전제를 말하자면 '여성들이여 몸 한 번 쫓다 해서 모든 걸 걸지마라!'이다. 오히려 여성은 남자와의 섹스를 어느 정도 가볍게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남자와의 섹스에 겁을 먹고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영화는 제목에서의 '저녁식사' 처럼 어떻게 보면 성욕은 식욕과 같은 동물적인 욕구 이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가벼운 섹스를 가장 잘 실행하는 여성은 바로 호정이다. 그녀는 남자와의 섹스에 당당하며 그녀의 섹슈얼리티는 친밀감이 아닌 쾌락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두 가지 욕망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다. 가장 실현에 흰하고 급기야는 간통죄에 연루되는 호정의 욕망과, 섹스는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리하여 내 꼬림한 인생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남자와 하는 것이라는 전형적인 여성형인 연희의 욕망 그 사이에서 여성의 욕망은 조절되어야 하는 것이다. 직장을 잃고 원 나잇 스탠드의 대상이었던 만화가에게 채인 연희가 마지막에서 오르가즘에 오르는 장면을 통해 그리고 작은 창문을 통해

(이전에 피했던) 벗은 몸으로 비를 맞는 행동을 통해 성적 욕망(여성의 성적 수동성과 대상화)을 (경제적으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사회적 욕망으로 재단하거나 채우려는 수단으로 삼는 여성들을 비판한다. 연희는 결국 일을 다시 구하고 혼자서 집을 구해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것이며 그렇게 자기 완결적인 사회적 욕망의 추구가 결국 주체적이며 능동적인 성적 욕망을 조절하고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다.

호정과 연희의 에피소드가 과잉된 섹슈얼리티와 (남성에게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의존적 섹슈얼리티에 대한 동시적 비판이라면 순이의 에피소드는 자위로서의 섹슈얼리티라는 또 다른 층위



에 놓여있는 여성 섹슈얼리티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자위란 육체적인 행위 이외에 남성에게 심리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말한다. 영화는 일견 순이의 에피소드를 호정과 연희의 에피소드와 비교, 긍정적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 순이의 자위 장면은 어두운 방에서 낡은 속옷(?)을 입은 채 거의 칙칙한 잿빛으로 처리되어 있다. 즉 자위로서의 섹슈얼리티는 다만 보여졌을 뿐 매혹이나 선망의 이미지로 다시 말해 동일화를 부추기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순이

가 식물 연구소에서 일하는 것도 상징적이다. 남자와의 섹스에 연루되어 있지 않은 그녀는 영화에서 상대적으로 열정이 없고 따라서 인생이 부여한 또 다른 의미있는 것-남자와의 섹스가 주는 즐거움-을 잃어버린 식물같은 여성이라는 독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성에는 여자가 성폭력을 당하는 위기에 이렇게 외치라고 말한 바 있다. '안돼요. 나는 아이를 낳을 몸이에요' 라고 말이다. 이 말은 여성의 성을 남성과의 관계에서만, 재생산으로서만 규정되는 여성의 성을 한 마디로 집약시켜 놓은 울부짖음이다. 한편 <처녀들의 저녁식사>에서 호정은 '내 아랫동네를 도대체 누가 관리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 지극히 주체적이라고 여겨지면서 참 철딱서니 없다고 여겨지는 이 말은 여성의 성적 쾌락을 주장하면서 성적 보호를 버리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남성의 성적 자유에 봉사했다는 점을 간과하는 말이다. 성 혁명은 항상 청년들의 반란이 었지 처녀들의 반란이 아닌 것이다. 프리섹스주의자 여성은 결국 이성애 가부장제를 유지 봉사하는 데로 귀속되는 것이다. 또 다른 처녀 순이는 열정없고 쾌락없는 성과 재생산으로서의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교묘하게 드러낸다. 딱 한 번의 섹스로 임신 하더니. 이 얼마나 책임과 위협으로서의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보여주는 것인가.

우리의 가을을 휩쓸고 지나간 성담론을 <처녀들의 저녁식사>의

연희를 통해서 마무리지어 볼까 한다.

정확하게 연희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말이다. 연희는 성적 욕망을 사회적 욕망과 혼동하고 이성애를 철저하게 자원으로 삼았던 여성이었다. 자신의 아랫동네를 거울로 살피다가 사고를 당하고 한 남자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고 직장까지 잃는다. 집까지 나가게 되어 혼자 사는 여자의 옥탑방을 둘러본다. 한편 그녀의 옆에는 순이라는 애정어린 친구가 있다. 영화의 결말에 그녀는 까치발을 하고 위태위태하게 바깥에 목을 내민다. 밖에는 연희를 둘러싼 남루한 현실을 말해주듯 비가 지척거리며 오고 있다.

여성을 둘러싼 성담론은 성적인 주체로 여성을 세우되 사방이 막혀있는 막다른 골목에다 세워놓고 여성이 과연 섹슈얼리티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진다. 그 질문을 풀어야만 사방이 뚫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쾌락이다 위험이다라는 단답식 대답과 적극적인 성행위니 수동적인 성행위니 하는 침실의 체위 문제로 국한시키는 한 절대 해답은 없다. 여성이 자신의 몸, 의식과 경험의 관계, 억압과 만족의 권리 등에 대한 변화와 성찰 그 과정속에 답이 있을 것이다. 연희는 성적으로 만족을 얻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좁은 창문에 나있는 세계를 마주하고자 하는 연희의 두렵지만 희망어린 시도를 통해 변화할 것이다. 성적 주체이자 사회적 주체로 말이다. 그래서 나는 <처녀들의 저녁식사> 마지막 장면을 하나의 답으로 제시하고 싶다. 유

책소개

<신에게는 딸이 없다>

(안드레아 드워킨 지음, 1990년 작품, 고려원 펴)

제목에서부터 상당히 강한 이미지와 도전적인 느낌을 던지는 소설이다. 이 소설은 작가 자신의 자전적인 성격을 취하고 있으며 그만큼 구체적인 느낌으로 그녀의 경험과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다. 그것은 감간이라는 여성들의 경험을 끊임없이 시각적인 행위의 묘사를 통해 전달하려는 방식과 달리 여성의 신체를 통한 느낌과 감성들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에서부터 나타난다. 작가의 이러한 감성은 감성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히려 더더욱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백체의 형식과 기존의 소설적 진술 방식을 전복시킨 듯한 표현양식은 이러한 그녀의(그리고 우리 여성들의)경험을 회피하고 싶으리만 치 살아있는 상태로 전달하는데 너무나 효과적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만치 급진적이고 저항적인 그녀의 주장들에 대하여 반발감을 느끼기 보다는 우선 그녀의 경험과, 그녀의 감성 그리고 그녀의 몸과 경험이 제공한 신념앞에 압도 당할 수밖에 없다. 성폭력에 대한 여성의 경험을 전달하는 소설로 읽으면 좋을 듯하다(물론 더 많은 목소리들이 터트려지고 있는 작품이다)

(지킴이 김보연 정리)

성폭력피해자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한 시인 박서원씨를 만나고

이미경 (본 상담소 부소장, 열림터 시설장)

성큼 다가온 가을의 어느날 오후, 혜화동의 한 찻집에서 만난 시인 박서원씨. 그녀는 <난간 위의 고양이>, <이 완벽한 세계> 등의 탁월한 시집으로 개성있는 자신의 시 세계를 일궈왔으며 최근 서른 이홉살까지의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담아낸 자전적 에세이 <천년의 거울을 건넌 여자>로 일반 독자들에게도 부쩍 친숙하게 다가왔다.

박 시인을 만나기 전 에세이를 통해 알게된 그녀의 삶은 대략 다음과 같다. 어려서 아버지 사별. 가난 속에서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보살피기 시작. 증조의할머니부터 3대째 불행한 과부의 삶이 이어지는 자신의 가계를 보며 초등학교 6학년때 당차게 자신의 삶을 결심. 그 시절부터 책을 통해 위안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보통아이보다 훨씬 예민한 감수성으로 문학을 꿈꾸기 시작. 생활과 확립적 학교교육에 대한 반발로 여상을 중퇴. 직장을 다니며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18세때 성폭행을 당함. 그때의 후유증으로 시도때도 없이 몸이 마비되며 잠에 빠져드는 희귀병인 기면증에 시달리기 시작. 약물 치료과정에서 부작용으로 불임선고. 그 삶의 고통이 너무 버거워 시도한 몇번의 자살기도... 결국 모든 시련을 딛고 일어서 문학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다.

그녀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사람들이 제 책의 내용 중에서 성폭력피해 사실이라든지, 22세 연상의 남자와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했던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안타까워요. 제가 한 여성으로 살아온 삶의 깊이 그리고 저 뿐만이 아니라 가부장제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대를 잇는 한(限). 그런것을 읽어내기를 바랬었거든요." 보통사람들로서는 생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시련을 이겨낸 그녀의 어조는 오히려 담담하기까지 했다. "스물네살 때부터 그분을 만나 사랑하면서 나는 내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내게 드리웠던 어둠으로 인해 내 삶이 깊어졌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시로 표현하는데 전념했지요. 물론 참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무엇보다 조카 치민이를 키우면서 제 속의 상처들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성폭력은 육체만이 아니라 한 인격이, 주체적 자아가 짓밟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적인 사건인 동시에 사회적인 사건입니다. 성폭력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좌절하는 것은 여자를 비하하는 세상에 즐거움을 안겨주는 자폭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라며 이 땅의 피해여성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순결이데올로기에 빠져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인



식하여 피해사실을 과감하게 드러내 잘못된 사회통념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자고 강조하는 박 시인.

그녀의 이야기는 물론 옳다. 그러나 문학에 대한 특별한 재능을 갖고 시를 쓰는 작업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극복해낼 수 있었던 그녀와 달리, 극복의 통로를 쉽게 찾을 수 없는 보통 여성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박 시인의 대답은 명쾌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특별함과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지 자기를 비하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그 특별함이 발휘될 수 없지요"

박시인은 본 상담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들으면서, 앞으로 상담소 활동에 함께하고, 특히 피해자보호시설인 열림터의 여성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내 과거 경험을 드러내고 함께 나누는 것이 다른 성폭력피해자에게 의욕과 용기를 촉발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들을 돕겠습니다"라던 박 시인은 이미 자신의 말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11월 13일 본상담소의 성평등교육문화센터 발족식에서 공개강연을 통해 자신의 피해 경험과 피해 이후 좌절과 분노 그리고 극복의 과정들을 진술하고 당당하게 밝혀 여러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힘을 주었다. 또 본 상담소에서 기획한 "여성의 삶과 글쓰기" 강좌의 강사로 주변화되고 파편화된 여성들의 삶과 의식에 날카로운 긴장감을 일으켜 세워주고 있다. 성폭력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단단히 한 몫을 하고 있는 박 시인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 나는 어느새 그녀의 다음 작품을 기꺼이 기다리는 독자가 되어있었다. 유

가슴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만난 감동의 자리, “제 7차 미국 학내 성폭력 추방을 위한 전국 대학생 연합 세미나” 참관기

최영애 (본 상담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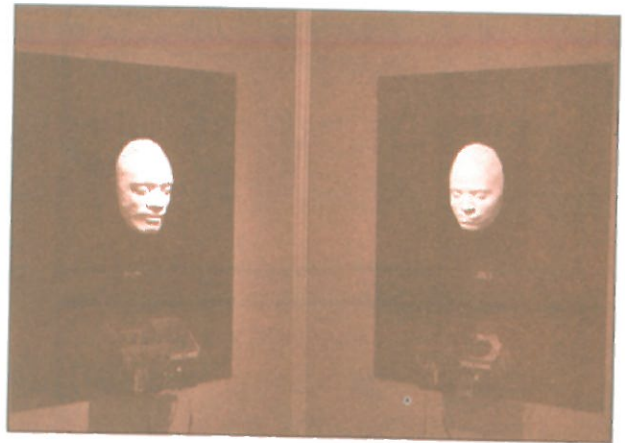
미 국내 각 대학에서 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학생들이 함께 모여 개최하는 학내 성폭력에 관한 제7차 세미나<7th National Student Conference on Campus Sexual Violence>를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큰 행운이었다. 3월 27일~29일까지 위스콘신 주립대학에서 온종일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 세미나를 참가하면서 이들 참석자와 주최측의 상호적·역동적 진행방식, 참신한 프로그램 그리고 이들이 뽑어내는 열정과 진지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현재 국내에서도 학내 성폭력 대책 활동이 여러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고 대학간의 연대 모임이 형성되어가는 시점이다.

이러한 시기에 미국 대학생들의 학내 성폭력 관련 연합 세미나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갖는 것은 앞으로의 국내에서의 학내 성폭력 연합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세미나에서 특기할 만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소개해보려고 한다.

우선 이 세미나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일은 이번 세미나의 준비위원장이 첫날 개막식 인사에서 자신은 성폭력 피해자이고 지난 6차 세미나 참여시에는 참담한 성폭력 피해 후유증으로 시달리던 성폭력 피해자에 불과했었다는 고백의 순간이었다. 수려한 외모와 차분한 어투로 지난해의 세미나 참여가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고백할 때 모든 청중은 참으로 뜨거운 기립 박수로 이 여성의 용기에 아낌없는 격려를 보냈다. 연이어 참석자 대표로 올라와서 동성애자로서 자신의 성희롱 경험과 학교로부터의 부당한 차별을 고발하고 왜 이 세미나가 필요한지를 역설하는 한 백인 남학생을 접하면서 나는 이들의 당당함과 의연함에 전율하며 감격했다. 한번도 성폭력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 본적이 없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언제쯤 우리는 이러한 감격의 순간을, 조건을 만들 수 있을까? 그저 부러울 뿐이었다. 세미나의 뜨거운 열기는 이렇게 첫날부터 타 올랐고 첫 번째 전체 프로그램으로 허슬러와 플레이 보이 등 미국의 대표적인 포르노 잡지에서의 여성의 성의 상품화를 고발하는 비디오 상영은 모든 청중의 분노를 끌어 내어 세미나의 열기를 더해주는 듯했다. 들쭉날쭉한 매우 다양한 주제의 워킹숍들이 개최되었는데 대부분의 워킹숍 발제와 진행은 각 학교별로 학생들이 맡아 진행하는 방식이었고 내용도 주로 자신들의 실제 활동내용과 문제점에 관한 것들이었다. 이러한 형식과 내용은 전문가 중심의 워킹숍에 익

숙한 나에게도 무척이나 참신한 기획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러한 형태야말로 주최측과 참석자 모두가 주체가 되어 상호 역동적 세미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워킹숍 진행방식도 기존의 발제와 토론의 형태뿐 아니라, 비디오 역할극, 오페라 형식 등 매우 다양했다. 동성애자의 권리 관련 워킹숍, 교수에 의한 성폭력을 효과적으로 대처한 사례 소개, 피해자 증언, 미디어 활용방안, 학내 성폭력 대책을 효과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 지역 성폭력 관련 단체들과의 연계체계 수립방안, 매춘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지원사례, 늦은 밤에 혼자 집에 가기 두려운 여성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하는 활동 소개 등으로 구성된 워킹숍들은 참가자들에게 실질적 실천방향을 모색하게 하는 자리였다. 또한 세미나 기간동안 고즈넉한 장소에 평안한 분위기의 상담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게 큰 감동을 준 것은 성폭력 피해자들 각각의 얼굴을 그대로 석고로 떠서 벽에 걸어 놓고 그 밑에 그들의 목소리로 그들의 피해사례를 생생하게 담은 녹음기를 부착시켜 언제든지 그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게 한 <감춰진 목소리 : Hidden voice> 전시실이다.



7-8평 남짓한 방안 벽면을 가득 채운 피해자들의 얼굴 앞에서 그들의 지난한 고통의 순간들에 대한 증언을 들으면서 나는 참으로 시공간과 피부색을 초월하여 그들과 가슴으로 만나는 벽찬 감동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머리를 벽에 기댄채 눈을 감고 녹음기를 듣는 사람, 땅바닥에 주저 앉아 눈물을 흘리며 듣는 사람, 무겁게 가라앉은 전시실이었지만 이 문을 나서는 사람들의 얼굴에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결연함을 끌어내는 획기적인 기획이었다.

이렇듯 참신한 기획, 모두가 주최자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성폭력 피해자들의 당당한 증언으로 이어진 이 세미나는 앞으로의 우리사회 학내 성폭력 대책 연합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미국 학내성폭력대책학생연합회와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갖고 활동하는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나의 세미나 참관 경험을 소개해 보았다. 현재 본 상담소내에서도 학내 성폭력 사건 지원팀이 결성되어 학내 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활동을 전개해가고 있다. 앞으로 우리사회에서도 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성폭력 관련 단체들과 학내 대책활동팀들이 함께 힘을 모아 힘있게 운동을 펼쳐나가기를 바라며 글을 맺는다. ☺

* 가 가



Repeat again!!

* 백년전의 기준

글·그림: 모기



상담소의 제도와 성폭력피해자들을 위해 좋은 글을 써주신 신영복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상담소(열린터)에 물품을 기증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경, 도서출판 세훈, 임순영

기금마련 일일호프에 도움주신 분들입니다.

녹십자(의료재단), (주)달마, 동아오츠카(주), (주)동양맥주, (주)메디슨, 실로암식품(주), (주)중외제약, 한국체링, (주)진로, 유니슨건설(주), LG정밀(주), C & C 엔터프라이즈 (주) 외 상담소 자원활동가와 여러 사회단체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상담소의 밤을 지켜줄 새 식구 10기 지킴이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강보길, 강승화, 고은애, 고정남, 구유희, 권신행, 김경미, 김명순, 김명재, 김무형, 김미옥, 김미혜, 김민지, 김봄메, 김성일, 김소현, 김수경, 김윤경, 김은영, 김정아, 김현미, 김희경, 김희선, 나성숙, 나혜숙, 박명선, 박민정, 박상희, 박영미, 방혜진, 서정화, 신성은, 신영지, 심수연, 안수진, 우안녕, 이비연, 이상림, 이선주, 이수연, 이승진, 이연경, 이영숙, 이유경, 이정은, 이지연, 이현영, 임선아, 임명원, 임화영, 장미희, 장준미, 정미영, 최명자, 최수정, 한유진, 한정화, 현지연, 홍유진

새로오신 (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상욱, 권경희, 김규만, 김미경, 김원애, 김철중, 김춘복, 박경원, 박난희, 박수진, 박용철, 박정화, 백혜숙, 성주향, 손문방, 송영옥, 심화란, 심 훈, 원영일, 유승희, 윤용미, 이경로, 이경희, 이난숙, 이보현, 이선순, 이진선, 이충호, 장희숙, 전승완, 정경아, 조미란, 진광희, 홍성복, 황현주

20,000번째 상담

1991년 개소 이래 성폭력 상담을 통해 피해여성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온 본 상담소의 상담횟수가 올해 12월로 20,000번째 상담을 넘어셨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혼자 어둠속에서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이 상담을 통해 하루빨리 그 고통속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상담소는 오늘도 전화벨 소리에 귀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반상담 : (02)529-4271~2 위기상담 : (02)573-1888

새로 발간된 책을 소개합니다.

[21세기 여성·미디어 운동센터 발족기념식 및 발족기념 토론회]

본 상담소 21세기 여성·미디어 운동센터 발족선언문 및 발족기념 토론회 '미디어와 청소년 성문화'의 발제문이 수록되어 있다. '비디오 테잎, 폭력 그리고 걸음(원용진-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 '미디어와 청소년 성문화(김옥순-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미디어에 나타난 성·폭력 내용의 문제점(강남준-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TV, 라디오 프로그램 모니터 보고서(김이운상, 임정진옥-본센터)'를 통해 건강한 미디어 문화 및 성문화에 대한 첨예한 논쟁 안건들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4,000원)

· 구입문의 : 윤이경미 책임연구원 (T.576-5450)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의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는 상처를 극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주시면 상담소에서는 이를 소중히 받아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면 본 상담소의 소식지 <나눔터>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상담소의 각종 행사에도 초대됩니다. 지금 전화하여 월단위, 혹은 연단위로 후원금을 약정하여 주십시오.

※문의: 문효진 부장 (T.576-7128)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런 곳입니다

1991년 4월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 이래 본 상담소는 지금까지 2만여 회의 성폭력 피해자들과의 법적·의료적·심리적 상담을 통해 내담자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였으며, 성폭력의 원인 및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인간중심적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예방비디오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 몇 가지 유형을 통해 성희롱이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알려줍니다. 사회진출을 앞둔 학생, 예비 직장인, 남녀 직장인들에게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요

어린이 성폭력 예방 비디오. 아직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없는 어린이들에게 인형극과 노래극을 통해 '내 몸은 소중한 것이며, 내가 아끼고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어린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그리고 어린이를 둔 부모님의 성교육 교재로 적합합니다.

너 무슨 생각하고 있니?

건강한 성규범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끄는 성교육이 부재한 환경 속에서 온갖 일탈적인 성문화에 대책없이 노출되어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작된 청소년 성폭력 예방 비디오. 청소년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이트 성폭력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과 남성 사이의 왜곡된 의사소통이 성폭력이라는 무서운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청소년들이 스스로 깨닫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토론자료가 담긴 팜플렛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 구입문의 : 박미숙 부장 / (02)576-7128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외부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예방과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외부 강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주제

성폭력 실태와 예방 /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 어린이 성폭력 / 직장내 성희롱 / 학내 성폭력 예방 및 성문화 / 성교육 지도자 교육 / 자녀 성교육 지도 / 유형별 성폭력 상담방법

※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본 상담소에서는 강의와 더불어 상담소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비디오를 함께 시청하고 토론하는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의 의뢰 문의 : 장윤경 사무국장 / (02)576-7128

한국성폭력상담소 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성폭력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으로, 인권에 대한 유린행위입니다. 성폭력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함께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상담, 열린터: (02)529-4271~2, 위기상담: (02)573-1888



본 상담소 심벌은 여성을 나타내는 ♀가 3개 모인 것으로 이는 여성들이 손을 잡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힘을 모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쪽의 비스듬한 다리모양은 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해 여성들 스스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벌의 색깔은 '여성'과 '자매'를 상징하는 자주색입니다.

● **이사** 강학중·문해란·민병진·박금자·오세민·윤장순·이동걸·조영광·최병애 ● **감사 회계사**/배자하 사무사/차재능 ● **자문위원 상담** 인간재활학/김종인 정신보건사회사업가/오현숙 목회상담가/이재훈 임상심리상담가/이철원 정연옥 심리학/이윤로·이정호·이혜성·장연집·채규만 사회학/장영복 사회복지학/한인영·현혜순 ● **법률** 검사/김옥철 법학/한인심 변호사/장기원·고순례·권성희·김삼화·박성호·박찬운·신기남·이명숙·이백수·이상경·이유정·이종걸·이향아·임종인·장재호·장철우·정갑생·정성광·정연순·조영황·최은순 경찰/김강자 ● **의료** 가정의학/김종구 법의학/강신봉·권일훈·문국진·서준석·이경룡·이윤성·최영식 신부인과/김주필·김현식·김홍배·윤영규·민은기·박경자·박금자·박양실·박종민·윤경·이길여·이옥주·임용택·정경원 선행외과/정영덕 소아정신과/소은희·최보문 신경정신과/김광일·김동순·김병후·김정일·남정현·양창순·이나미·이수경·최진숙 외과/오세민 임상병리과/강정옥·문해란 ● **PC상담가** 통신/김형준 여론조사/이상경 ● **홍보 출판** 신문방송학/김용숙·최선열 언론인/전여옥 여성학/박해란·오숙희 연극/김지숙·손숙 출판/강학중·이인자 PC/고학관 조소/홍성도 재경의사/민병진 회계사/배자하 임중은 사무사/차재능 대한적십자사 자문위원/윤장순 ● **교육** 교사/김성애·이순열 교육학/김인수·정유성 사회복지학/신필규 청소년교육/이규미 문화인류학/경병호 ●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소장/이원숙 사회학/김준호·심영희·조형 여성학/김은실·변해정·이재경·장필화·조주현·허라금 인류학/경병호 철학/이상화·정대현 심리상담가/권진숙 아동복지학/강화정 통계학/이용재 영문학/강경화 청소년연구원/김옥순 법학/김선옥·신용자 사회심리학/김혜원 사회학/박진숙 영화평론가·변재란 ● **21세기 여성·미디어 운동센터** 공동위원장 박정순 자문위원: 신문방송학/강명규·김훈순·원승진·홍석경 기자·백지연 논설위원/지영선 ● **성평등교육문화센터** 운영위원 사회학·교육심리학/강영숙 사회학·가족교육학/김희은 저널리스트/박미라 윤리교사/백병애 프리랜서/여남영 임상심리상담가/이철원 ● **대표이사** 박금자 ● **소장** 최병애